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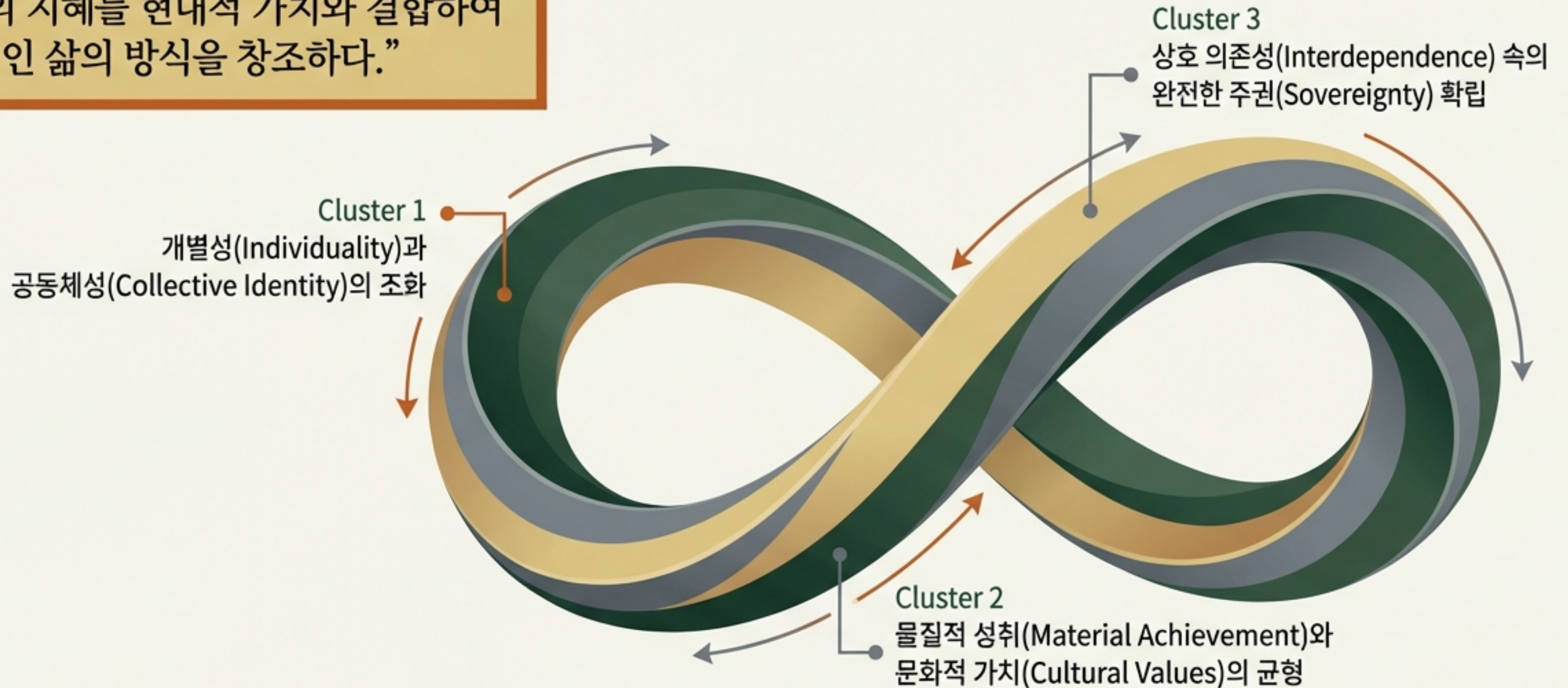
# 오나이다 네이션: 주권, 자립, 문화 부흥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과거의 지혜로 설계하는 미래의 청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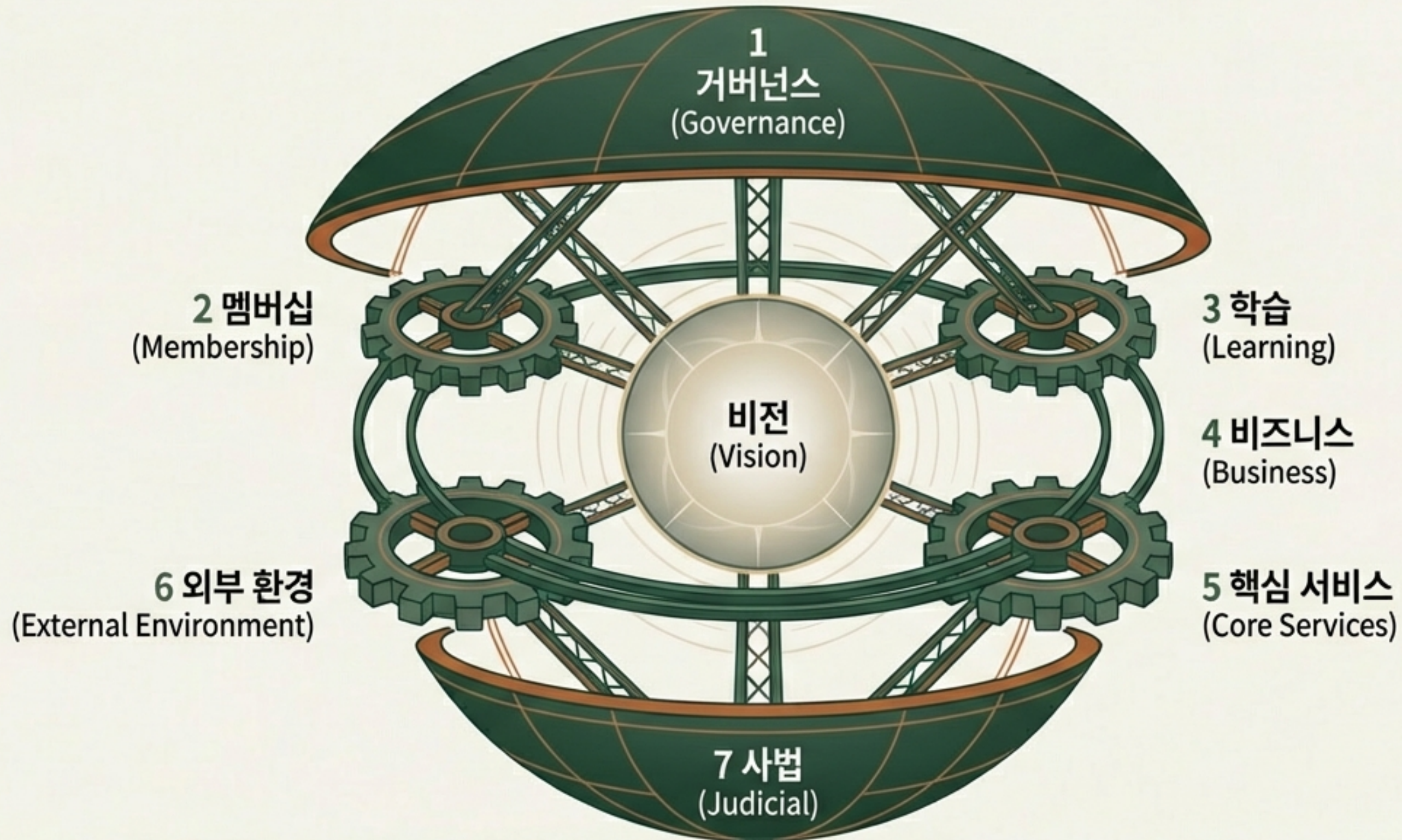


# 상충하는 가치들의 시너지 창출

“과거의 지혜를 현대적 가치와 결합하여 성공적인 삶의 방식을 창조하다.”



# 오나이다 네이션의 7차원 아키텍처 (The 7-Dimensional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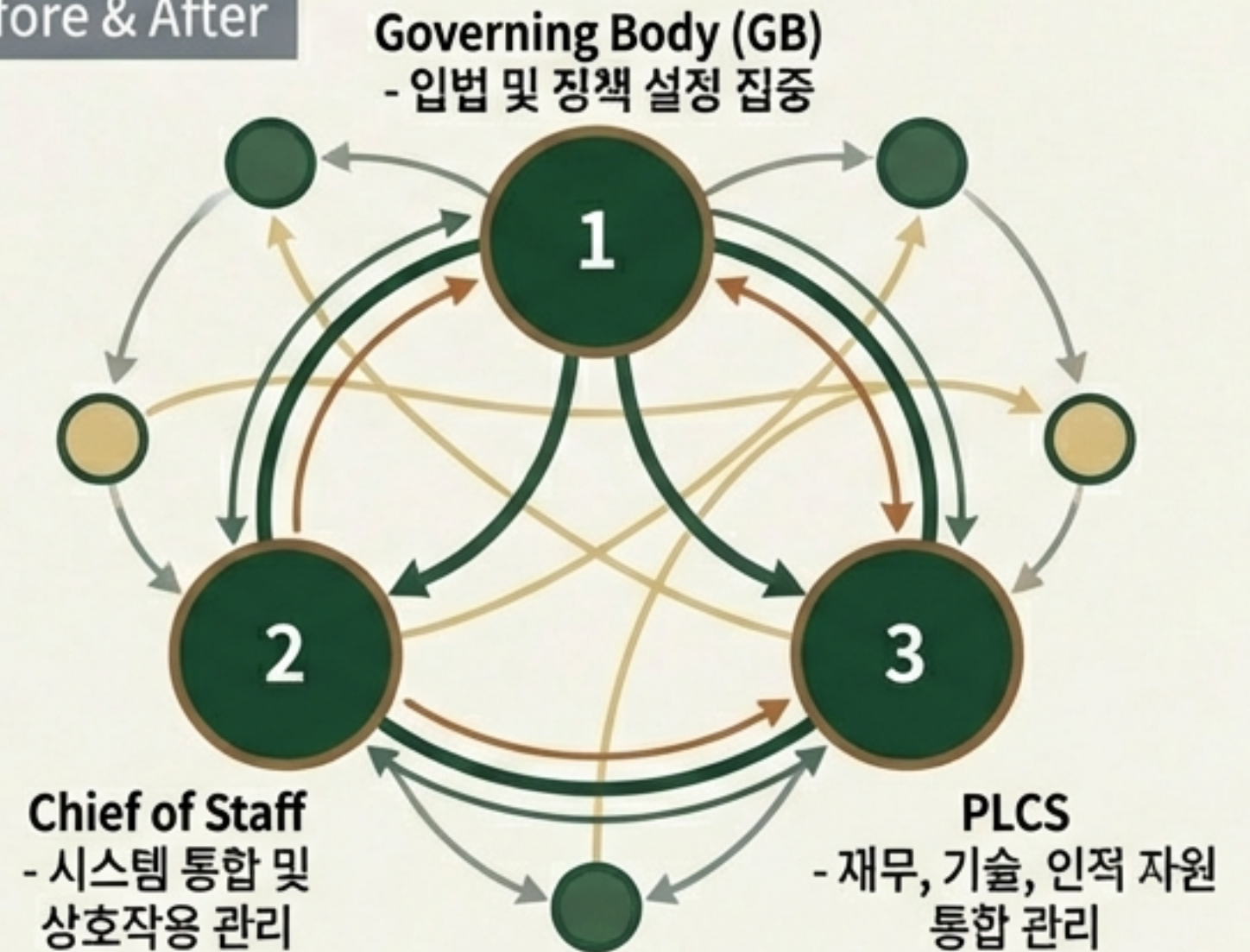
# 거버넌스: 권한의 분산과 통제의 재정의 (Governance System)

“통제(Control)의 패러다임 전환:  
단순한 ‘감독’이 아닌 ‘학습(Learning)’으로.”

Before &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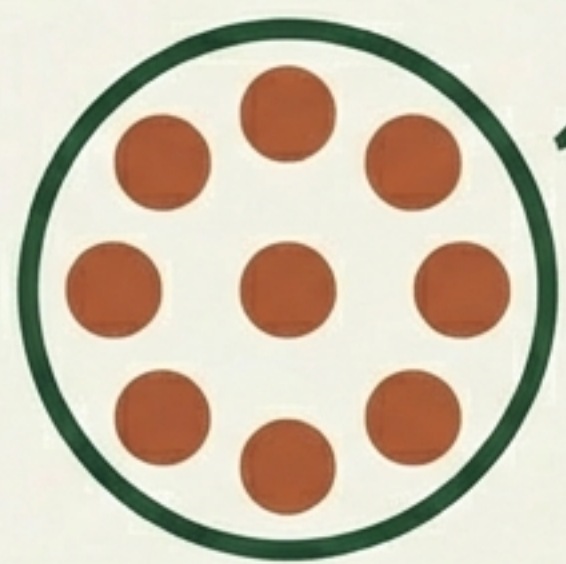


Before &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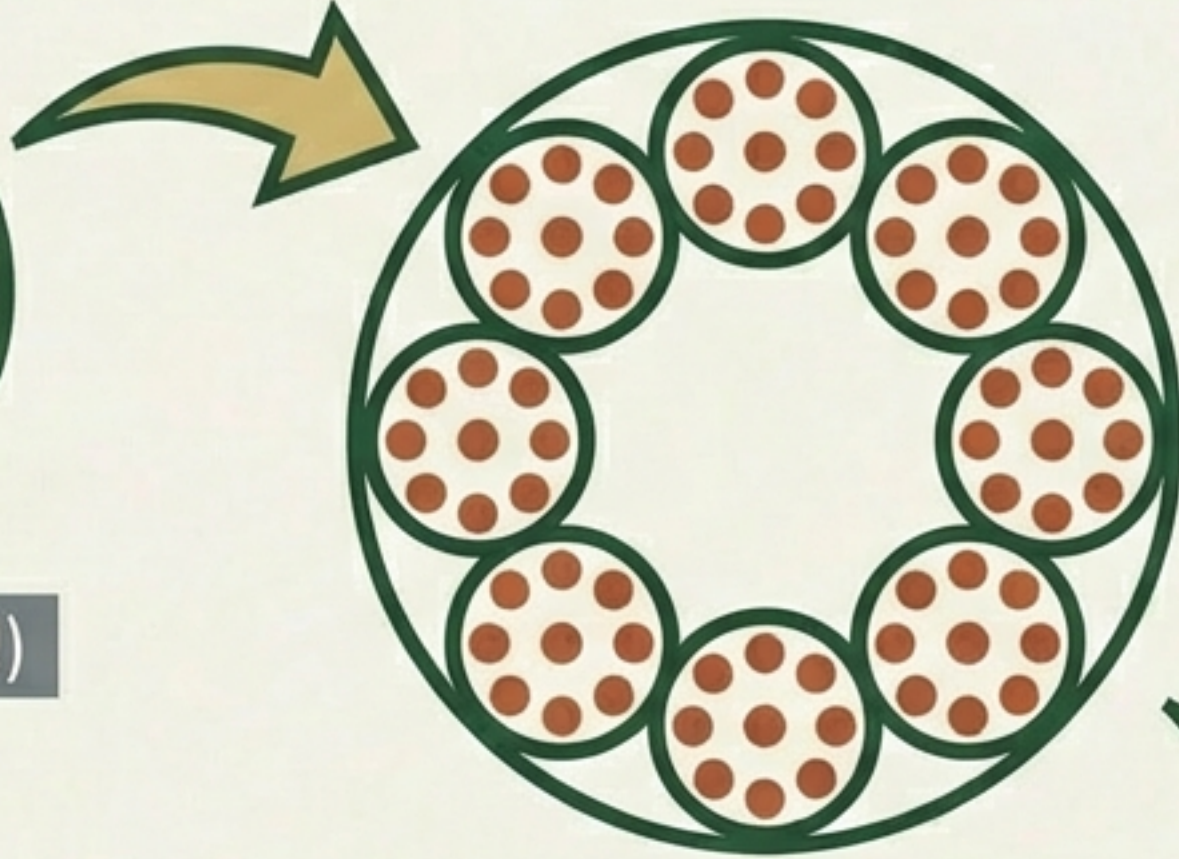


# 멤버십 시스템: 국가 건설과 권한의 복제 (Empowe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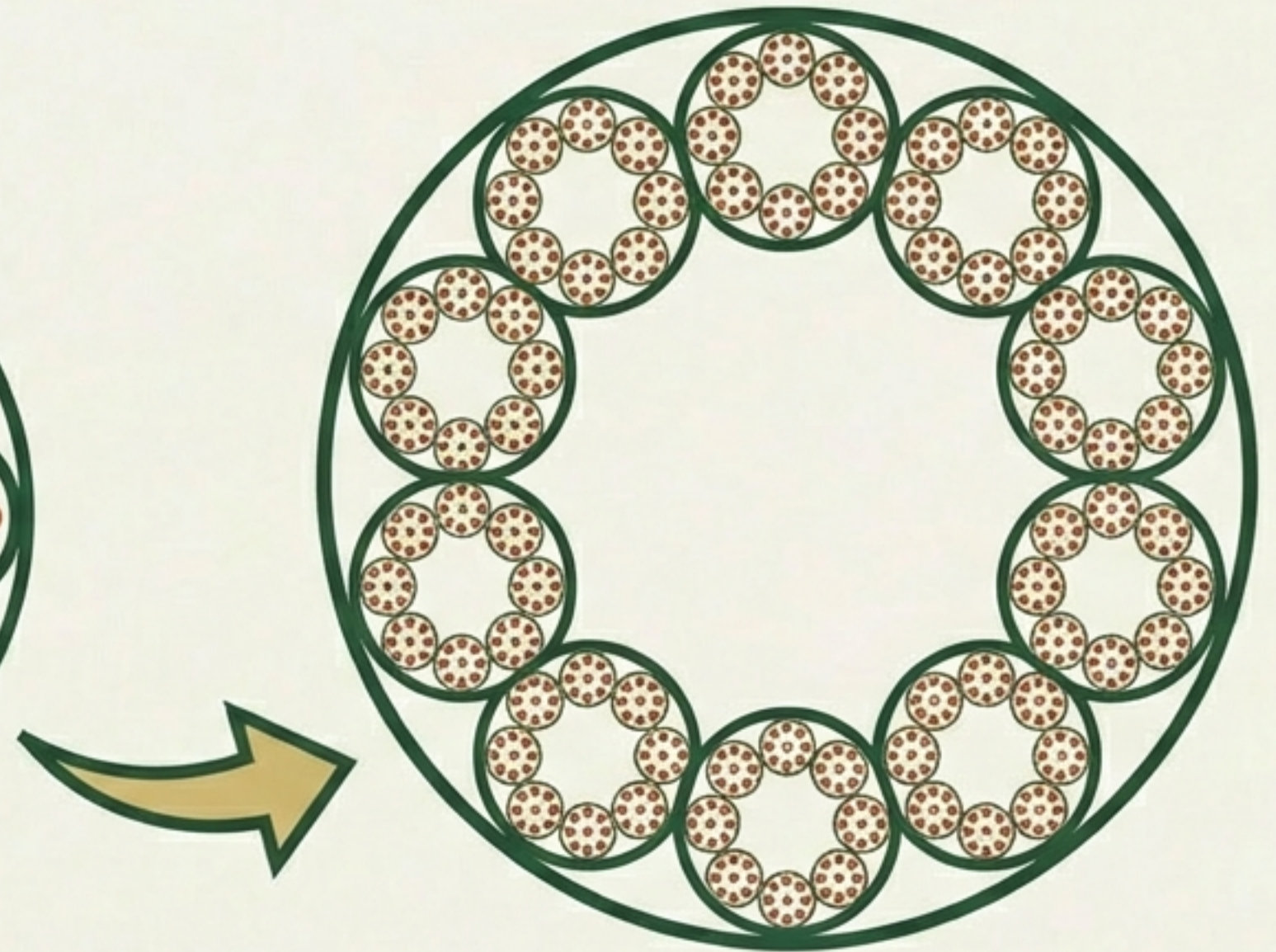
“권한 부여는 포기(Abdication)가 아니라 복제(Duplication)다.”



Level 1: 9개 셀 (81명)



Level 2: 81개 셀 (729명)



Level 3: 729개 셀 (6,561명)

# 과거로 미래를 짓다: 전통적 합의 도출 모델 (Consensus Building)

다수결을 넘어서는 합의(Consensus)의 과학.

**곰 (Bear / Solver):**  
구체적 대안 및 해결책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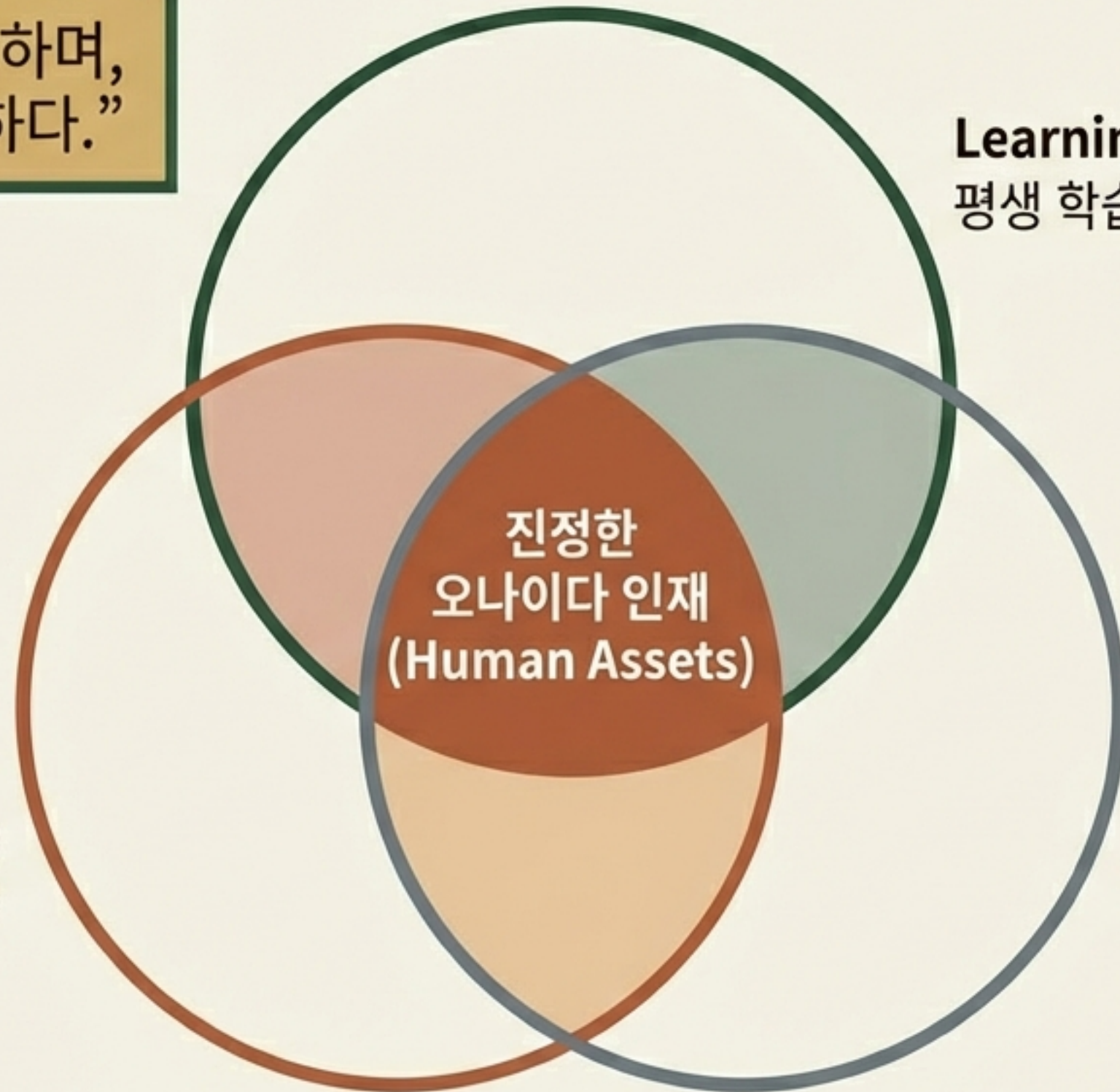


**늑대 (Wolf / Pathfinder):**  
맥락 파악 및 방향 설정

**거북이 (Turtle / Formulator):**  
문제의 본질 정의

# 학습 시스템: 능력과 욕망의 결합 (Learning Systems)

“능력 없는 욕망은 무력하며,  
욕망 없는 능력은 공허하다.”



**Learning to Learn (정규 교육):**  
평생 학습을 위한 지적 토대

**Learning to Do (전문 교육):**  
실질적인 전문성과 기술 연마

**Learning to Be (문화 교육):**  
정체성, 미학, 삶의 목적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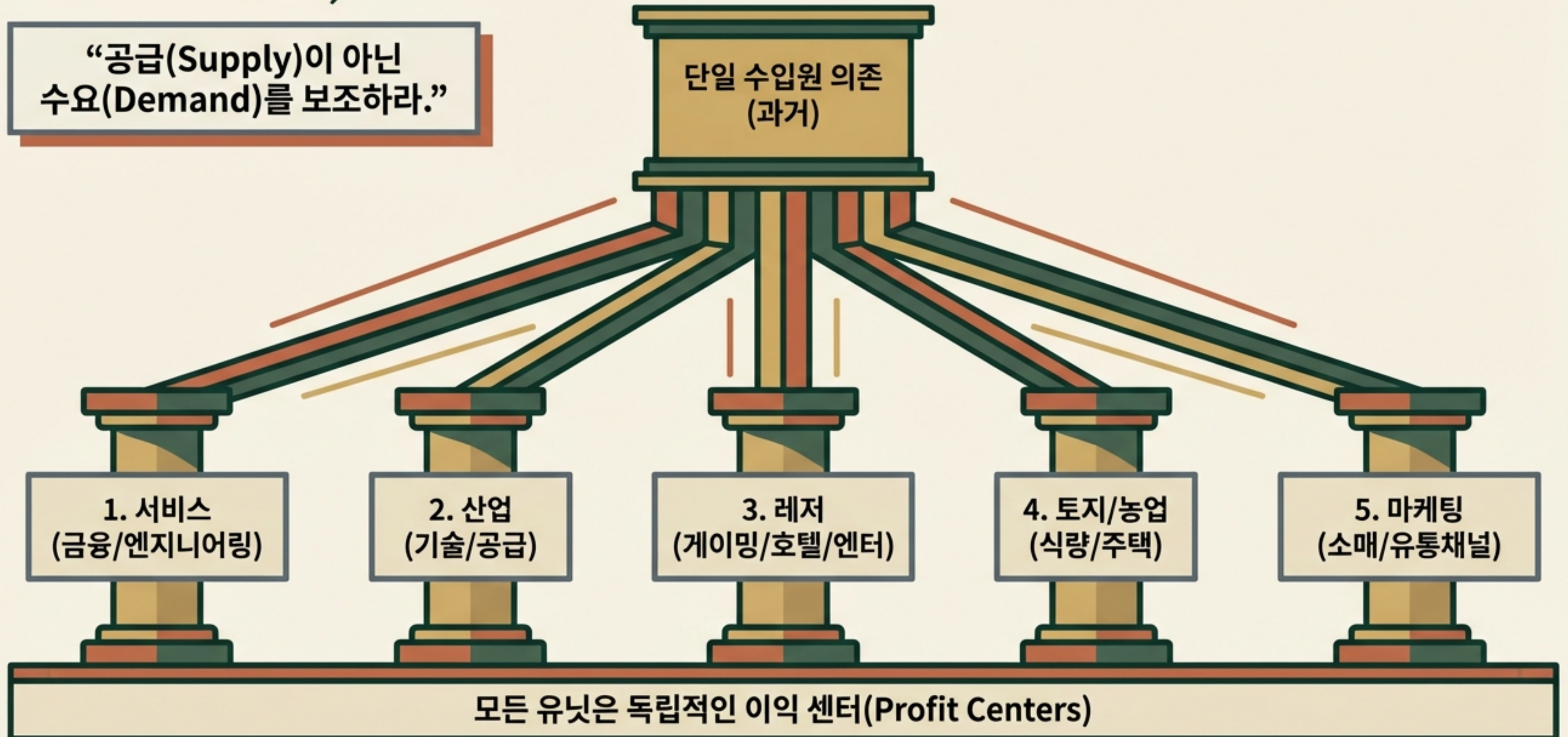
# 오나이다 멀티버시티: 경계 없는 학습 생태계 (Oneida Multiversity)

모든 구성원이 교사이자 학생이 되는 벽이 없는 학교(School without wa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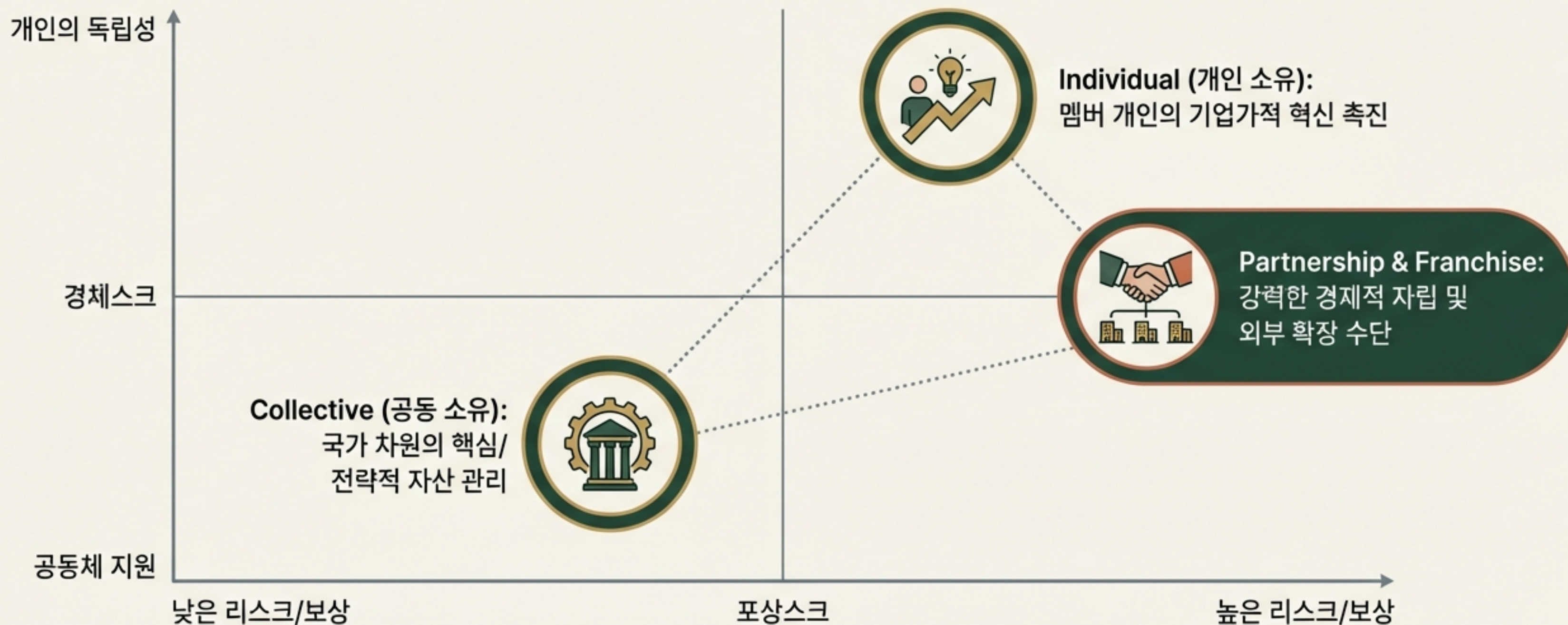
# 비즈니스 시스템: 부의 창출과 포트폴리오 다각화 (Wealth Generation)

“공급(Supply)이 아닌 수요(Demand)를 보조하라.”



# 소유 구조의 다각화: 자립과 기업가 정신 (Ownership Diversification)

“부의 분배를 넘어, 부를 창출할 권리와 역량의 분배.”



# 핵심 서비스: 사회적 안정의 인프라 (Core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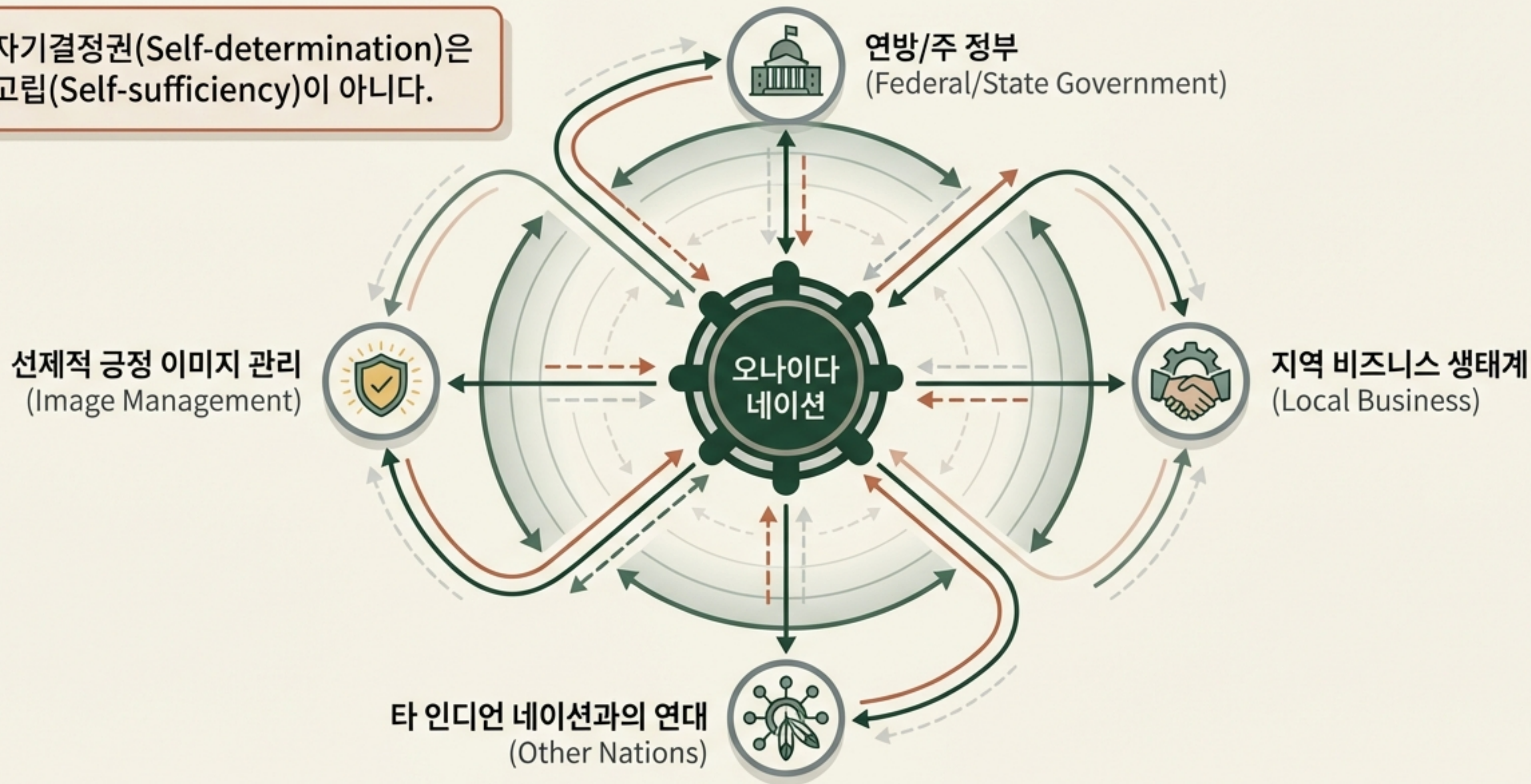
예산의 크기가 아닌,  
**'비용 효율성'**으로  
성과를 증명하라.



패러다임 전환: 통제자(Controllers) → 서비스 제공자(Servers)

# 외부 환경: 양방향 인터페이스 (External Environment)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은  
고립(Self-sufficiency)이 아니다.



# 사법 시스템: 주권의 수호와 구조적 갈등 방지 (Judicial System)

정치와 비즈니스의 분리: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저렴한 정의(Affordable Justice).

개인의 권리(Rights)와 책임

공동체의 권리(Rights)와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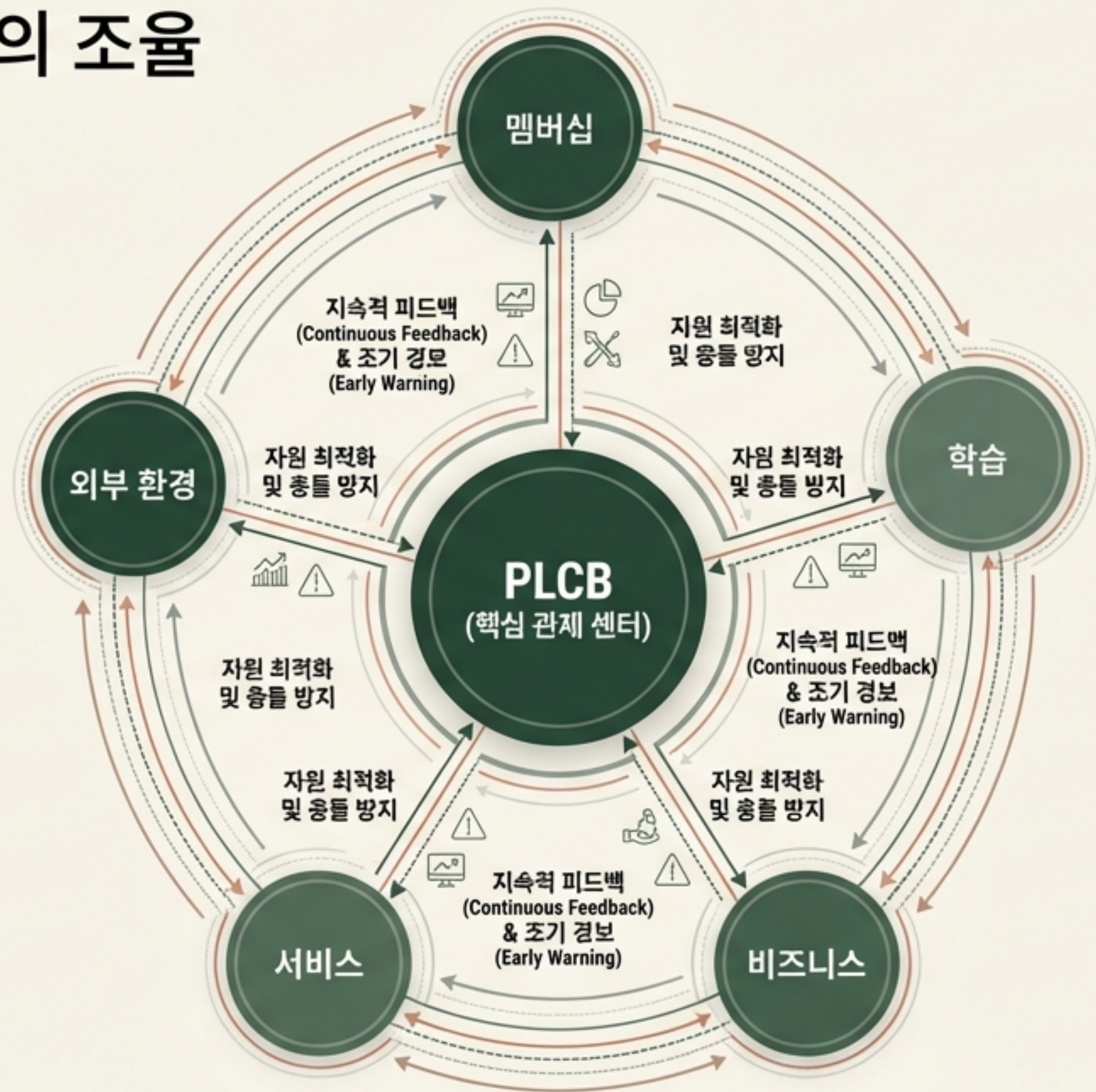
Governance (정치)



Collective Ownership (비즈니스 경영)

# 통합 메커니즘: 거대한 유기체의 조율 (Integrating the Whole)

PLCB (Planning, Learning, and Control Board):  
7개 차원의 실시간 시너지 창출.



# 결론: 진화하는 미래의 마스터 (A Sovereign, Viable Future)



“우리는 과거의 죄수(Prisoners of our past)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Masters of our future)이다.”

내면의 결속력과 외부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완성된 오나이다 네이션. 과거의 지혜에 깊게 뿌리내려, 가장 공배-있게 뿌리내려, 가장 혁신적이고 독립적인 미래로 진화하다.